



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1603 by Caravaggio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크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요한 20,27)

■ 미사

- 제 1독서: 사도 2,42-47
- 화답송: (아래 참조)
- 제 2독서: 1베르 1,3-9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복음: 요한 20,19-31

•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30
- 일요일 오전 7:00
- 오전 9:00(영어미사)
-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수·목요일 오후 7:30
-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부활 제2주일에 성삼성당 교우들께 드리는 글>

우리 성삼 성당 교우 여러분~!! 한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온마음 기도드리며 늘 함께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와 정보가 수도 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신앙적인 시각과 건전한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도움이 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4월 13일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에, 산타 마르타의 집 미사 (Holy Mass at Casa Santa Marta)에서 정부 관계자와 과학자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처할 올바른 방법과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택할지 돈이라는 우상을 택할지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시면서, 사람들의 선의를 위해 택하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2020년 4월 19일 부활 제2주일에, 주임신부 양태현 그레고리오)

*** 부활 제2주일 방송 미사 안내 (유튜브 - KCBC US) ***

<교황님의 미사 지향>

“오늘 (미사 중에) 전염병 대유행 <이후> 출구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한 정부 관계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항상 (전 세계) 민족들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기도합니다.”

<교황님의 강론 요지>

“정치인과 과학자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교황님은 강론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당신 제자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이날 복음(마태 28,8-15 참조)을 해설하시면서 복음말씀이 오늘날에 유효한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을 제시합니다. 이는 부활의 그날 이후부터 생긴 매일의 선택이자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곧,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택하느냐, 아니면 무덤에 대한 향수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황께서는 강론을 이어 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마태 28,8 참조). 하느님은 항상 여인들과 함께 시작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여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또 한 번 무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걸지도 몰라.’ 같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의심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확신에 차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선포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우리 가운데에 살아 계신다고 말입니다”(마태 28,9-10 참조).

“다른 사항도 살펴봅시다. 빈 무덤으로 살아가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점입니다. 실로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겁니다. 게다가 사실을 은폐하려는 결정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신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우상, 곧 돈을 섬기게 됩니다. 주 하느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봅시다. 이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 (예수 부활이라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돈이라는 우상을 내어주며 침묵이라는 값을 치렀습니다(마태 28,12-13 참조). 증인들의 침묵 말입니다. (사실) 경비병들 중 한 명만이 이제 막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르 15,39).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남아있었기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값을 치렀습니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증인들의) 침묵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는 그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타락, 순전히 부패 그 자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락과 부패가 우리의 무덤에 봉인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관하게 그분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탓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들 앞에서 이런 길을 택한다는 것은 악마의 길이자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돈 받고 입을 닫았으니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번 전염병 대유행의 종식을 앞두고 -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와 동일한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사람들의 부흥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돈이라는 우상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돈을 택한다면 굶주림, 종살이, 전쟁과 무기생산,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무덤으로 돌아가는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개인 삶에서나 사회생활 안에서, 선포의 삶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포는 항상 저 멀리 바라보며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를 택하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울러 돈이라는 우상의 무덤에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

교황께서 역설하시는 것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과 부흥을 택할지 아니면 돈이라는 우상을 택할지 갈림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돈을 택한다면, 굶주림, 종살이, 전쟁, 무기생산, 아이들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등을 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것이고 결코 돈이라는 우상의 무덤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의 선의를 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하자고 호소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영성체 후 미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영적 영성체(신령성체)’ 기도문을 바치고 성체조배와 성체강복으로 미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황께서 바친 영적 영성체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영적 영성체(신령성체) 기도문]

성삼 소식

부활 제2주일 미사 유튜브 영상 안내

- 일시: 4월 19일(주일) 오전 10:00
- 주례: 양태현(그레고리오)신부님
- 미주 가톨릭 방송(KCBC US)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한 기도

- 합동 묵주 고리기도 매일 저녁 8:00
- 기간: 4월 6일(월) ~ 30일(목)
- ※ 사도신경, 묵주기도, 성모송 10번

요일	신비	구역별
월요일	환희	1구역: 신비 1단
화요일	고통	
수요일	영광	2구역: 신비 2단
목요일	빛	3구역: 신비 3단
금요일	고통	4구역: 신비 4단
토요일	환희	5구역: 신비 5단
일요일	영광	

부활 계란 만들기 콘테스트

- 작품제출: 1가족 1작품(작품사진 혹은 작품과 가족사진)
- 제출마감: 4월 19일(주일) 오후 5시까지.
- 제출방법: 각 구역 반장님께 사진전송
- 작품 전시회는 성당문 열리는날....
- 문의: 성당 사무실 323-221-8874

우리들의 정성 (2020. 4. 12 현재)	
교무금	1,600.00
주일 헌금	0.00
감사 헌금	483.00
성소 후원금	5.00
사랑의 헌금	160.00
교무금(6명) 고대준, 김애경, 방옥순, 예영해, 오만규, 이영옥,	
감사헌금: 김광신, 김애경, 방옥순, 이진석, 익명,	
사랑의 헌금: 김광신, 심재경	
성소후원: (3명)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트민 백화점(9가+ 웨스트민)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계원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 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애틀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